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중한

서울신문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국제 통화기금(IMF) 사태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송인서적과 보문당의 부도사태에서도 적절한 말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보다 많은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다.

우선 문제의 핵심을 바로 정리해야 한다. 그 첫째는 출판유통 채널의 단순성이다. 세계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온갖 채널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하게도 한국출판은 도매상과 소매상이라는 단선적 서점채널에만 의존해왔다. 한 채널에 의지했으므로 그 채널이 깨질 때 피해도 배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책값의 다중적 구조이다. 폐기해야 할 책의 염가판매마저 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유통유통인 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도매업체의 경쟁과 매절관행에 의해 책값의 다중화가 이루어져 있다. 공연히 독자들만 정가의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판매기간 중 정가 판매·할인판매·대폭 처리판매를 할 수 있다는 상례조차 책에서만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판매전략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영방식이다.

셋째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는 서점의 규모에 출판이 적절한 대응을 해오지 않았다는 문제다. 오히려 작아진 서점규모에 맞고, 더 단순해지는 시장규모에 맞추는 출판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독자도 단순화시켰다. 이 점도 이제는 자가비판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서점 유일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출판유통의 혁신을 통해서만 기회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근본적 과제는 IMF요구조건에서도 제일 먼저 제시되었듯이 출판경제의 투명성 확립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부도를 발생시킨 도매업체의 경영투명성을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은행경영은 창구에 은행원이 필요하지 않음 만큼 고객 스스로 자기통장을 혼자서 관리하는 체계가 완성된 단계이다. 좀 겁이 나서 그렇지, 세계 어느 은행과도 집에 앉아서 홈 뱅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출판의 장부는 판 사람도 준 사람도 정확한 계수나 합계를 모르고 있다. 이런 관리체제로 출판이 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반복해 말하건대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하나뿐이다. 출판유통체계의 혁명적 개혁을 하는 일이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유통망을 출판계 공영으로 성립시키고, 모든 판매거점은 최대한 다양화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발행한 책을 사회적 자산으로 아끼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인문·사회과학서들은 서점에서 일반독자가 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일반독자가 사지 않을수록 더 가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생명이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배본과 동시에 반품을 받아 잠시 창고에 있다가 파지장으로 가고 있는 책을 우리는 수십만권씩 보고 있다.

이 책들은 어떻게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각급 도서관이 해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도서관들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도 개인보다 못한 도서구입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역시 이번 계기에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IMF한파에 출판지원책을 얻어내기가 또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정보사회는 창조력이 경쟁력이고, 아직은 인쇄매체가 창조력 계발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경쟁력 창출의 구체적 도구로서 책의 의미를 재인식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호소력을 가진 행동으로 말이다. ◆

긴급 제안	2	유통 선진화 위한 새 조감도 그릴 때	- 김중수
쟁점	4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의 '맥'	- 김병준
초점	6	'지각변동' 앞두고 긴장감 팽팽한 학습지 시장 신학기 불구 매출 대폭 감소 ... 교육정책 등 변화에 촉각 곤두세워	
저자초대	7	《존재와 증명》의 펄낸 김광수 교수	
특집/불황기에도 기획은 계속된다	8	영혼의 '보릿고개' 넘길 예술혼 고대 / 문학	
	9	철학과 역사학, 인물탐구 활발할 듯 / 인문·사회	
	10	생활에 응용할 새로운 기술과학서들 / 과학·기술	
	11	국내 창작물, '우리것'에 관심 부쩍 / 어린이	
출판가	12	출판의 변경지대 개척하는 새내기출판사들	
서점가	13	'그때 그시절'의 감상 넘치는 독서풍경	
출판화제	14	'반쪽 거울' 언론에 예리한 비판	- 정대철
이 책을 말한다	15	시바 료타로 《한나라 기행》《탐라기행》을 읽고	- 김기협
이 달의 출판 광고	16	출판광고업계 힘쓰는 회원제 학습지 광고	
가상대담	17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과의 만남	- 임경순
연재 에세이	20	"문명세계 어디에서도 책은 최고의 기쁨"	- 이광주
나의 초기적과 최근작	22	세계사상에 자리매김될 우리의 사상찾기	- 윤사순
인터넷 출판향해	23	깔끔하고 앙증맞은 어린이책 정보원	- 박광렬
해외서점 탐방	24	일본의 어린이·여성전문서점 '크레용하우스'	- 김은지
만화	25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서평	26	이광세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 김동식
		컬러 《해체비평》	- 권택영
	27	릭 페리 《신-인간, 혹은 삶의 의미》	- 서정민
		돈 아이다 《기술철학》	- 임홍빈
	28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 이상훈
확대서평	29	로년 지음 《세계과학문명사 1·Ⅱ》를 읽고	- 송상용
이 책 그 사람	30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펄낸 이경성씨 《지리이야기》 펄낸 권동희씨	
	31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펄낸 조병준씨	
	32	새 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⑥	